

# 제주 방언 보조조사의 담화 기능

문순덕\*

## 차례

1. 머리말
2. 보조조사의 담화 기능
3. 마무리

## 1. 머리말

중양어에서 보조조사의 통사·의미·담화 기능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되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제주 방언 보조조사의 담화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논의할 보조조사는 ‘라근에/라근 : (이)랑(은/는), ㄹ치/ㄹ찌(같이, 처럼), 처록/츄록/처름/ㄹ추록(처럼, 같이), ㄹ장/ㄹ지(까지), 알좌/아올라(마저, 조차), 냥(대로), 만이(만큼), 바껏/바껏(밖에), (이랑)마랑(커녕)’ 등이다. 이들은 중양어와 형태가 다른 보조조사여서 담화 의미가 같은지 다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외에도 중양어와 형태가 동일한 보조조사 ‘도, 만’이 있으며 강세보

조조사 '아'는 제주 방언에서 '사'로 쓰인다.

## 2. 제주 방언 보조조사의 담화 기능

### 1) 라근에/라근 : (이)랑(은/는)

여러 형태의 보조조사는 중양어 '은/는'에 해당한다.

(1) 가. 나도 그디 가카?(나도 그곳에 갈까?)

나. 너라근에 이디 오지 말라.(너는 여기 오지 말라.)

다. 너라근 집에 가라.(너는 집에 가라.)

(1가)에서 화자가 자신의 의사를 타진해 보았는데 (1나)의 발화에서 청자의 의사를 거절하고 있다. 네가 여기에 오면 나쁘다거나 등 여러 이유가 숨어 있다. 초점이 '너라근'에 있어서 너의 행동에 제약이 있다. 화자는 청자에게 이곳에 오지 말라고 행동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은 여기에 올 수도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 담화 상황에서 화자와 청자간에 어떤 경험이라는 정보를 알려 준다. 화자의 입장에서 청자인 '너'에 대해서 여기 오지 말아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알고 있는 구정보이기 때문에 보조조사 '라근에'가 쓰였다. '너'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은 와도 좋다는 허용의 발화이기도 하다. 부정문에서 보조조사 '라근에'는 동작주의 행동을 제약하는 담화 기능이 있다. (1다)에서 화자는 청자인 '너'의 행동을 명령하며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발화되지 않았다. '너는 가고 다른 사람은 여기 있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보조조사 '라근'은 구정보일 때 쓰인다.

(2) 가. 밥 먹읍서.(밥 먹으십시오.)

나. 나랑 (밥) 안 먹어도 좋주.(나는 안 먹어도 좋다.)

다. 밥이랑 안 먹어도 좋주.

(2나)에서 보조조사 '(이)랑'은 부정문에 쓰여서 화자의 행동을 제한하며 초점이 '나랑'에 있다. 즉 나 이외의 누구든 먹어도 괜찮는데 나는 안 먹어도 좋다며 상대방의 행동을 허락하고 있다. '(이)랑'이 동작주의 행동을 제한하는 발화인 것은 부정문에 쓰였기 때문이다. (2다)에서는 '밥이랑'이 초점화되었다. 밥 이외의 다른 것은 먹어도 된다는 말이다.

보통 보조조사가 붙는 어구가 초점화된다. 화맥에 따라 어느 성분이든 보조조사의 결합 여부에 따라서 초점이 될 수 있다. 초점이 되는 성분은 화자의 의도에 따라 선택된다.

일반적으로 대화시에 청자는 화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좋은 의사소통의 비결이다. 보조조사의 담화 기능을 분석해 봄으로써 면대면 상태의 대화시 언어장애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보조조사 '라근'의 담화 기능은 화자와 청자간에 공유된 지식이 있을 때 그 의미가 선명하다. 따라서 보조조사의 담화 기능이란 발화된 문장에서 초점되는 성분에 붙는 것이다. 보조조사 '라근, (이)랑'이 쓰인 어구가 문장에서 초점을 받는다. 보조조사 '라근'의 담화 영역은 발화된 문장이며, 담화 의미는 '동작주의 행동을 단정'하는 것으로 본다.

## 2) ㄴ치/ㄴ찌(같이, 처럼)

(3) 가. 무사 경 울엄수광?(왜, 그렇게 울고 있습니까?)

나. 지녁ㄴ치 공부 하영 현 사람은 잘 몰라.(자네같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잘 모른다.)

(3나)에서 보조조사 'ㄴ치'는 주어인 '지녁'을 한정하면서 그런 부류

를 가리킨다. '지녁ㄴ치'에 초점이 있다. '잘 모르는' 대상은 못 배운 사람들의 서러움 등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보조조사 'ㄴ치'는 선행명사와 결합해서 비교의 대상을 가리킨다. 화자는 동작주의 처지를 부러워하거나 서글픈 자신의 심정을 함축하고 있다. 배움의 정도에 따라서 삶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화자와 청자가 모두 공유하는 정보일 때 보조조사 'ㄴ치'의 담화 기능이 가능하다. 물론 담화에서 화자의 발화 의향에 따라서 보조조사가 선택된다.

(4) 가. 거 어떻 생겨서나?(그것은 어떻게 생겼더냐?)

나. 손가락ㄴ치 생겨어.(손가락같이 생겼다.)

(4가)에서 초점은 '어떻게'이며 (4나)에서 화자는 어떤 사물을 보고 그 생김새를 '손가락'에 비유하고 있다. 보조조사 'ㄴ치'가 비교의 대상으로 쓰이기 때문에 화자는 언제나 비교할 수 있는 사물의 성질을 알고 있어야 하며, 청자 역시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발화상의 거리감이 없게 된다. 화자는 비교하는 사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청자가 잘 모른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청자가 잘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보조조사 'ㄴ치'를 발화할 때 화자는 청자의 얕 정도 등 여러 정보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만 의사 소통에 장애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발화시에 화자는 자신의 직관이나 이해 정도에 따라 말하게 된다.

(3), (4)에서 보면 화자의 사전 정보망에는 '지녁'의 지식 정도나 '손가락'의 여러 특징이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조조사 'ㄴ치'는 동등 비교 대상일 때 문장이 성립하며 발화된 문장이 담화 영역이 된다. 담화 기능은 청자에게는 구정보이지만 간혹 신정보일 수도 있다. 담화 의미는 '화자의 바람'이나 '단순 비교'라 본다.

(5) 나영 ㄹ찌 가게.(나와 같이 가자.)

(5)에서 제주 방언 ‘ㄹ찌’는 부사로써 중양어 ‘같이’의 통사 기능과 같고, 제주 방언 ‘영’은 중양어의 공동격 조사 ‘와’에 해당한다.

‘ㄹ찌(ㄹ치)’는 형용사 ‘ㄹ뜨다/ㄹ트다’에서 부사로 파생되었고, 보조조사로 문법화되었는데 이는 중양어와 같다.

### 3) 처록/츄록/처름/ㄹ추록(처럼, 같이)

(6) 너처록 말 하영 곤지 안허켜.(너처럼 말 많이 하지 않겠다.)

(6)에서 화자는 청자인 ‘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며, ‘너처록’에 초점이 있다. 너의 말 많은 행동은 화자의 과거 경험이나 발화 현장에서의 경험일 수 있다. ‘처록’의 비교 대상은 동사구이다. ‘사람은 누구나 말을 많이 할 수 있다.’를 전제하며, 화자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나쁘다는 부정적인 생각의 소유자임을 함축한다. 그래서 보조조사 ‘처록’이 쓰이고 있다. 강정희(1998)에서 ‘ㄹ추록’은 ‘ㄹ치’와 ‘추록’의 혼성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주 방언에서 보조조사 ‘ㄹ치’와 ‘처록’은 대치가 가능하다.

(7) 가. 지녀처록 공뷔 하영 현 사름은 잘 몰라.

나. 손가락처록 생겼어.

다. 너ㄹ치 말 하영 곤지 안허켜.

라. 가의ㄹ치 공뷔 잘해 보라.

보조조사 ‘처록’과 ‘ㄹ치’가 교체되는 것은 화자와 청자 사이에 공유된 정보가 있을 때 자연스럽다. 중양어에서도 보조조사 ‘처럼’과 ‘같이’가 비교의 의미를 지니며 통사 기능이 같다.

(8) 가의처록 공뷔 잘해 보라.(그아이처럼 공부 잘해 보라.)

(8)에서 화자는 주로 부모님일 확률이 높다. '가의'의 행동을 비교하고 있는데 청자도 공부 잘하기를 기대하는 심리가 드러나 있다. '가의처록'에 초점이 있어서 '가의'와 비교 대상은 '너'이다. 즉 너는 말만--행동 등--하지 말고 공부나 잘했으면 좋겠다는 화자의 바람이 드러난다. '가의'가 공부를 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청자에게는 구정보일 확률이 높지만 신정보일 수도 있다. 만약 신정보라면 청자는 정보 파악이 되어야만 화맥을 받아들일 수 있다.

(9) 가. 치메 이처록 멘들앙 입으라.(치마 이렇게 만들어서 입어라.)

나. 그처록 올민 뒤어?(그렇게 올면 되니?)

다. 저처록 구짜 걸으라.(저렇게 똑바로 걸어라)

(9)에서 지시대명사 '이, 그, 저'와 보조조사 '처록'이 결합해서 부사가 되었다. 즉 '이처록'은 '이(와) 같이/처럼', '그처록'은 '그(와) 같이/처럼', '저처록'은 '저(와) 같이/처럼'으로 해석된다. 중양어에 비해서 제주 방언의 발화가 자연스럽다. 비교의 의미를 지닌 보조조사 'ㄹ치'와 '처록'의 담화 의미는 '선행어의 지정·확인'이라 본다.

#### 4) ㄹ장/ㄹ지/꺼정(까지)

중세국어에서는 보조조사 'ㄹ지'와 'ㄹ지'가 공존했는데 중양어에서는 '까지'로 쓰이며, 제주 방언에는 ㄹ지로 남아있다. 중세국어인 ㄹ장(極盡)은 ① ㄹ장(最)>가장(부사)로, ② ㄹ장(極盡)>ㄹ장(제주어)>까지(중양어)로 변화되었다. 그래서 제주 방언 보조조사 형태가 중양어와는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니라 현대국어와 중세국어의 교량적 역할임을 알 수 있다.

(10) 가. 가의넨 쌍둥이난 잘도 닳았저.(그 아이들은 쌍둥이어서 매우 닳았다.)

나. 응, 태어난 시ㄱ장 ㄴ트다.(태어난 시간까지 같다.)

(10가)에서 화자가 쌍둥이의 닳은 점에 감탄하자 (10나)의 반응이 나온 것이며 (10가)의 발화를 부연 설명하고 있다. (10나)에서 '시ㄱ장'에 초점이 있어서 그 외의 조건은 물론 태어난 시간을 포함한다는 말이다. 화자와 청자에게 쌍둥이의 닳은 점에 대한 지식이 구정보임을 알 수 있다.

보조조사 '까지'는 '부터'와 동일 통사 구조에서 쓰이며 종착(도달)점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ㄱ지'는 결과의 의미가 크다. 'ㄱ장'의 담화 영역은 발화되지 않은 영역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청자의 지식이나 정보 정도에 따라서 담화 의미가 달라진다. 예문(11)과 비교해 볼 때 의미영역에 차이가 나는 것은 동사구와 관계가 있다.

(11) 가. 너 그 사람 좃아시나?(너 그 사람 찾았느냐?)

나. 아녀. 지금ㄴ지 좃지 못했저.(아니. 지금까지 찾지 못했다.)

(11가)에서 화자는 청자의 반응을 묻고 있다. (11가)는 이미 주어진 정보인데 (11나)에서 그 정보의 결과가 실현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조조사 'ㄴ지' 이후의 결과는 불확실하다. 그래서 보조조사 'ㄴ지'가 발화된 문장의 행동만을 확인할 수 있다. (11가)에서 화자는 청자의 행동이 완료되기를 기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확인하는 발화일 수도 있다. 그런데 (11나)의 응답에서 응답자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뜻이다. 보조조사 'ㄴ지'는 동작의 완료라기보다는 중간 단계라 할 수 있다. 보조조사 'ㄴ지'에는 '도착/도달점'의 의미가 있어서 'ㄴ지'는 동작의 완료라 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미완료의 의미이다. 즉 화자가 원하는 대상을 찾으려고 했는데 '지금'이라는 시간 부사와 결합해서 정해진 시점에서 멈추어 있음을 뜻한다. 찾

기 시작한 시점에서부터 도달점으로 향하는 과정의 한 점을 뜻한다. 부정 서술어와 공기하고 있어서 그 언제부터인가 찾기 시작해서 '지금'이라는 시점까지 어떤 일을 이루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물론 시간 부사 '지금'을 도착점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도착 또는 완료의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런데 (11)의 담화에서 부정문과 공기하는 경우 '까지'는 일의 진행 과정으로 본다. 즉 (11나)에서 화자는 지금까지 찾지 못해서 여기서 멈출 수도 있고, 계속해서 찾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보조조사 '까지'의 담화 의미는 도착(완료)의 성격이 강하지만 과정의 의미도 있다. 발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 5) 아울러/알과(마저, 조차)

중양어에서 '아울러'는 부사이며 더붙어의 의미가 있다. 그런데 제주 방언에서는 보조조사 '마저/조차'의 문법 기능이 있다.

- (12) 가. 어멍아올라 욱허민 안 뉘주.(어머니마저 욱하면 안 되지.)  
나. 바람 불명 비아올라 왁져.(바람 불면서 비까지 온다.)

(12가)에서 '아올라'는 선행 명사 '어머니'의 행동을 규제하고 있다. '어멍아올라'에 초점이 있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머니는 예외'라는 뜻이다. '아올라'는 선행 명사의 긍정적인 행동을 기대할 때 그 기대가 실현되지 않음을 비난하는 발화이다. 보통 화자의 정보 체계 안에는 '어머니'가 동조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 정보가 파기되었을 때의 발화이다. (12나)에서 화자는 비가 오면 나쁘다는 부정적인 정보를 갖고 있어서 바람부는 것도 싫는데 비까지 내릴 수 있느냐는 불평 섞인 발화이다. 보조조사 '아올라'가 쓰인 문장은 의미상 부정적인 발화이며, '아올라'의 담화 의미는 '기대한 정보의 파기'이다.



## 6) 냥으로(대로)

제주 방언 보조조사 '냥으로'는 중앙어 '대로'에 해당한다.

(13) 가. 집이 어떻 가쿠가?(집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나. 나냥으로 알앙 가켜.(나대로 알아서 가겠다.)

(13가)에서 화자는 청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지를 묻고 있고 그에 대한 응답이 (13나)이다. '나냥으로'에는 화자가 스스로 알아서 방법을 선택하겠다는 뜻이다. 보조조사 '냥으로'는 화자의 의지를 더해 준다. 그 누구의 간섭없이 화자 스스로 방법을 선택할 때 쓰인다.

보조조사 '냥으로'는 주로 화자의 구정보에 의해서 선택되지만 간혹 신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다. 보조조사 '냥으로'의 담화 의미는 '화자의 자유 의지, 허용'이라 본다.

(14) 나 곧는 냥 강 굴으라.(내가 말하는 대로 가서 말해라.)

중앙어 '대로'는 보조조사와 의존명사로의 품사통용이 있는데 제주 방언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보조조사 '냥'은 '대로'와 같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중앙어 '대로'는 의존명사이건 보조조사이건 형태 변화가 없는데 제주 방언인 경우 보조조사로 쓰일 때는 '냥으로'이고, 의존명사일 때는 '냥' 단독 형태가 쓰인다.

중앙어에서 "그냥 집에 있어."는 "그대로 있어."와 같다. '그냥' 외에 '이냥, 저냥'도 쓰인다. 중앙어인 경우 지시대명사 '이, 그, 저'에 '냥'이 결합되어서 '이대로, 그대로, 저대로'의 의미를 지닌 부사로 쓰인다. 따라서 중앙어에서는 '냥'이 보조조사의 문법 기능이 없지만 제주 방언에서는 보조조사와 의존명사의 문법 기능이 있다. 그렇다면 보조조사 '냥'은 중앙어에서는 한 단어로 융합되었고 제주 방언에서는 독립된 문법

기능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 (15) 가. 지네 ㅁ음대로 구짜 감서.(자기들 마음대로 똑바로 간다.)  
나. 곧는 대로 들읍서.(말하는 대로 들으십시오.)

제주 방언에서 '대로'가 보조조사와 의존명사 기능이 있는 것은 중앙어와 같다. 다만 중앙어에 없는 보조조사인 '냥으로'가 제주 방언에 쓰여서 선택의 폭이 넓다. 표준어교육을 받은 세대에서는 '냥으로'에 비해서 '대로'의 발화가 자유롭다.

### 7) 만이(만큼)

중세국어 '만'은 ① 만큼, ② 뿐/만, ③동안/만(명사)의 뜻으로 쓰였다. 여기에 근거해서 제주 방언 '만이'가 보조조사임을 보고자 한다.

- (16) 가. 난 그 사름광 일 안허쿠다.  
(나는 그 사람과 일 아니 하겠습니까.)  
나. 가의만이 일 잘허는 사름 엇다.  
(그 아이만큼 일 잘하는 사람 없다.)  
다. 세상 일이 그만이 어렵주.(세상 일이 그만큼 어렵다.)  
라. 느 먹을 만이 가지라.(네가 먹을 만큼 가져라.)

(16)에서 보조조사 '만이'는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 비교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중앙어 '만큼'에는 의존명사와 보조조사의 문법 기능이 있는데 제주 방언 '만이'도 이와 같다.

(16가)에서 화자가 그 사람을 싫다고 하니까 (16나)에서 화자는 동작주의 부지런함을 칭찬하고 있다. 보조조사 '만이'는 선행 명사의 행동이 동사구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보조조사 '처록', 'ㄹ치'와 같이 비

교의 의미가 강한 보조조사는 화자의 '이미 읽' 정도에 따라서 비교가 된다. 그래서 이들 보조조사는 화자의 구정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청자에게는 구정보일 수도 있고 신정보일 수도 있다. 물론 (16가)의 화자가 '이미 읽' 정도, 구정보에 따라서 발화하면 (16나)의 화자가 자신의 정보에 따라서 긍정하거나 부정할 수 있다. '가의만이'에 초점이 있어서 '그 아이'가 최고라는 뜻이다. 보조조사 '만이'가 쓰이면 화자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다. (16다)에서 화자는 세상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했으며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는 발화이다. '그만이'는 '그 정도로'의 의미와 같다. 보조조사 '만이'의 담화 영역은 발화된 문장이고, 담화 의미는 '화자의 단정'이다.

(16라)에서 '만이'는 의존명사로 쓰여서 중양어의 문법 기능과 같고, '정도'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 8) 바껏/바껏(밖에)

제주 방언 보조조사에는 '박/밖/밖/바껏/바껏/(外)' 등 여러 형태가 있는데 중양어 '밖에'와 제주 방언 '바껏되/밖되/밖되'가 대응한다. 'ㄱ' 덧생기는 체언의 형태를 갖고 있다.

(17) 가. 방에 이신 사름 다 알아지크냐?

(방에 있는 사람 다 알 수 있겠니?)

나. 너밖되 모르켜.(너밖에 모르겠다.)

(17나)에서 선행 명사만을 한정하고 있다. 초점이 '너밖되'에 있어서 너는 잘 알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모른다는 뜻이다. 보조조사 '밖되'의 제한 범위는 선행 명사를 넘지 않는다. '너'는 구정보이지만 그 외는 신정보여서 화자가 신정보를 습득할 기회가 없음을 뜻한다. '바껏'의 담화 영역은 발화된 문장이며, 담화 의미는 '한정'으로 본다.

(18) 올레 바깸디 나강 보라.(대문 밖에 나가서 보라.)

중양어와 마찬가지로 '바깸'은 명사로 쓰이고 있다. '바깸+디'에서 '디'는 제주 방언 처소격조사이다.

9) (이랑)마랑(커녕)

(19) 가. 글 하영 썼수과?(글 많이 썼습니까?)

나. 썸이랑마랑 놀암저.(쓰기는커녕 놀고 있다.)

다. 가의안티 돈 줘디강?(그아이에게 돈 주었습니까?)

라. 줌이랑마랑 받음만 헛저.(주기는커녕 받기만 했다.)

제주 방언 '(이랑)마랑'에서 '이랑'은 중양어 보조조사 '은/는'에 해당하며 '마랑'은 동사 '말다'에서 보조조사로 문법화되었다. '마랑'이 보조조사로 쓰일 때 '이랑'을 동반하므로 '(이랑)마랑'이 단일형태로 여겨진다. 중양어에서 '(는)커녕'의 통사 구조와 같으며 '고사하고, 그만두고'의 뜻이다.

(19가)에서 화자는 일의 진행 정도를 묻고 있다. 물론 그 묻는 의도는 인사일 수도 있고, 정말 궁금해서 확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 (19나)에서 응답자는 일이 진척되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다. 글을 써야 하는데 쓰지도 못하고 오히려 놀고 있다는 말이다. '(이랑)마랑'은 화자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뜻한다. 화자의 의지대로 실현하지 못함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며 아쉬움이 내포되어 있다. (19다)에서 '돈 지불' 행동이 끝나야 되는데 (19라)에서 보듯이 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물론 오히려 다른 행위가 발생했음을 발화하고 있다. (19라)에서 화자는 그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도리어 도움 받았음을 발화하고 있다.

보조조사 '마랑'이 쓰인 어구와 후행절의 내용이 반대로 실현된다. '마랑'의 담화 영역은 발화된 문장 내에 있으며 담화 의미는 '화자의 기대에 어긋남'으로 본다.

보조조사는 선행 명사를 기준으로 해서 동사구의 발화 내용을 제약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조조사는 단순히 선행 명사에만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발화된 문장 전체에 관계된다. 담화 상황에서 초점은 보조조사에 놓이며, 화자의 의사 표현에 따라서 보조조사가 선택된다. 화자의 의향에 따라 선택되어 쓰이는 보조조사가 담화상의 의미 차이를 갖고 있고 이것이 보조조사의 담화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즉 화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발화하느냐에 따라서 보조조사가 선택된다.

### 3. 마무리

이 글에서 논의한 보조조사는 '라근에/라근 : (이)랑(은/는), ㄹ치/ㄹ찌(같이, 처럼), 처록/츄록/처름/ㄹ추룩(처럼, 같이), ㄹ장/ㄹ지(까지), 알과/아올라(마저, 조차), 냥(대로), 만이(만큼), 바껏/바껏(밖에), (이랑)마랑(커녕)' 등인데 제주 방언에만 쓰이는 보조조사 형태는 '라근, ㄹ추룩, 냥, 만이, 아올라, 마랑' 들이다. 제주 방언과 중앙어에서 보조조사 형태가 다른 것을 중심으로 해서 담화 의미를 분석해 보았다. 비록 형태는 다르나 의미·통사 기능이 중앙어와 같음을 보았다. 따라서 제주 방언이 한국어의 범위에서 벗어나 독자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공통 영역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론에서 논의한 보조조사의 담화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보조조사 '라근에/라근 : (이)랑(은/는)'의 담화 의미는 '동작주의 행동을 단정'한다고 본다.

보조조사 'ㄹ치/ㄹ찌(같이, 처럼)'의 담화 의미는 '화자의 바람'이나

‘단순 비교’라 본다.

보조조사 ‘처록/초록/처름/ㄹ추록(처럼, 같이)’의 담화 의미는 ‘선행어의 지정·확인’이라 본다.

보조조사 ‘ㄹ장/ㄹ지(까지)’의 담화 의미는 도착(완료)의 성격이 강하지만 과정의 의미도 있다. 발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보조조사 ‘알라/아올라(마저, 조차)’의 담화 의미는 ‘기대한 정보의 파기’로 보았다.

보조조사 ‘냥으로(대로)’의 담화 의미는 ‘화자의 자유 의지, 허용’이라 본다.

보조조사 ‘만이(만큼)’의 담화 의미는 ‘화자의 단정’이다.

보조조사 ‘바껏/바껏(밖에)’의 담화 의미는 ‘한정’으로 본다.

보조조사 ‘(이랑)마랑(커녕)’의 담화 의미는 ‘화자의 기대에 어긋남’으로 본다.

#### 〈참고문헌〉

강정희(1998), “제주방언의 혼성형에 대하여”, 한남어문학 23.

남광우(1971), 고어사전(보정판), 일조각.

윤재원(1989), 국어보조조사의 담화분석적 연구, 형설출판사.

이익환·권경원 역(1992), 화용론, 한신문화사.

한글학회(1992), 우리말 큰사전.

현평효 외(1995), 제주어사전, 제주도.